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실 BWC운영팀(전화 : 031-628-0026~0027 팩스 : 031-628-0054 이메일 : bwc@koreabio.org)
생물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www.bwckorea.or.kr



러시아, Georgia에 미국 바이오 연구소 유치 관련 무역관계 제한 위협

러시아의 공중보건 분야 고위관리는 이웃국가인 Georgia가 강력한 공격 가능성(powerful offensive potential)이 있는 미국의 바이오 연구소를 유치한 것에 대해 Georgia와의 무역관계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Interfax가 보도했다.

Gennady Onishchenko 러시아 관리가 “러시아는 이를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Interfax측에 말했는데, 웹사이트인 Civil Georgia에 따르면 Gennady Onishchenko는 Richard G. Lugar 공중보건연구센터를 언급하고 있다.

Interfax가 Gennady Onishchenko의 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Georgia의 와인제품, 야채, 기타 농산물 공급 및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Georgia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미국 해군의 바이오 연구소가 Georgia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료품이야말로 위험한 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것은 인체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Onishchenko는 Georgia가 전에 농업분야의 공격을 통해 러시아에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를 한차례 유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Georgia의 의료분야 고위관리는 “이 연구소에 대한 우려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Inter

fax가 별도로 보도했다.

Georgia의 국립질병통제공중보건센터(Georgia's Nation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ublic Health)의 Amiran Gamkrelidze 센터장은 “이곳은 여러 분야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최고의 표준 연구소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다” 라고 말했다.

Gamkrelidze 센터장은 “러시아 직원들이 연구소를 검토했고, 연구소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라며, “이 연구소는 어떠한 생물무기도 개발하지 않으며, 그 어떤 비밀활동도 추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문가와 연구원 그 누구라도 이 곳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 점을 확인해도 괜찮다” 라고 말했다.

2013년 5월 Georgia에 파견된 미국 특사는 Georgia 관리들이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ivil Georgia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2012년에 러시아의 전면적인 생물무기금지협약 준수에 의혹을 나타낸 미국 국무부의 분석을 반박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늘 그렇듯이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라고 공개논평을 통해 말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22)

미국, Georgia 공화국 바이오 연구소에 대한 러시아의 비난 일축

미국의 한 외교관은 구 소련 Georgia 공화국 연구소에서 생물무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러시아 의료분야 고위관리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Interfax가 보도했다.

Richard Norland 주 Georgian 미국 대사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Georgia의 트빌리시 Richard G. Lugar 공중보건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인 성격의 활동을 직접 검증해보아도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공중보건분야 고위관리인 Gennady Onishchenko는 Georgia의 의료 및 국제분야 종사자들이 동 사안에 대해 성급하고 자질이 없는 견해를 제공한다고 비난했다.

동 관리는 Interfax측에 “물론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소충이 있다고 해서 이 충을 비엔나 왈츠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Onishchenko는 러시아 교역감독기관인 Rospotrebnadzor도 감독하고 있는데, 동 기관은 이 시설이 Georgia 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역의 건강 및 웰빙과 관련해 이 곳에서 진행되는 연구나 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공개된 대화가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30)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항생제, 탄저균 감염 치료효과 기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잠재적 신약이 탄저균과 기타 여러 가지 그람양성균(Gram-positive bacteria)에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는데, 염소유도체가 그람양성균을 죽이기 때문이다.

탄저병은 Bacillus anthracis라는 포자 생성간균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감염된 가축에 의해 확산된다. 탄저균은 몇 년 동안 생물무기로서 공포대상이 되어왔고, 2011년에는 탄저균 포자가 들어있는 우편물 공격으로 인해 다섯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탄저균에 감염되었을 때는 대개 다양한 항생제와 함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특히 호흡기를 통한 감염은 위험하며 이 경우엔 정맥항생제로 꾸준히 치료해야 하며, 효과적인 항생제를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Wiley 보도에 따르면 William Fenical과 함께 작업하는 연구원들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근처의 연안 퇴적물에서 Streptomyces 종을 분리했다. 배양추출물은 탄저균에 대해 유의한 활성을 보였으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대학과 Trius Therapeutics사(샌디에고)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이 추출물에서 분자를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이 추출물은 탄저균과 staphylococci, enterococci, streptococci 같은 그람양성균을 죽이지만 그람음성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anthracimycin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분자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hracimycin은 14개의 탄소원자로 된 고리 한 개와 각각 6개의 탄소로 된 고리 2개가 이어진 독특한 고리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polyketide

과정을 통한 생합성 발생 가능성이 큰 macrolide(큰 고리 모양 구조를 가진 염기성의 항생 물질)로, 연구원들은 X선 결정학 연구를 통해 이 화합물에서 7개의 비대칭 탄소의 절대입체배열을 규명함으로써 완전한 3차원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류의 분자들은 현재 알려진 모든 항생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와 유사한 탄소골격은 육상에 서식하는 myxobacterium의 일종인 Sorangium cellulosum의 신진대사산물인 chlorotonil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chlorotonil은 탄소골격이 다르고, 염소원자가 2개이며, 비대칭 탄소 대부분의 입체화학적 구조가

anthracimycin과 다르다.

과학자들은 상당히 유사한 chlorotonil에서 염소원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nthracimycin에 염소치료를 해보았다. 염소가 들어간 유사물은 탄저균에 대한 효과가 절반 수준이었지만 다수의 그람음성균에 대한 활성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그람음성균이 대개 기존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 새로운 항균물질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하면 효과적인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Homeland Security News Wire : 2013. 7. 3)

미국 연방 지원 연구 에볼라 백신, 원숭이에서 방어 효과

연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동물실험에서 몇몇 실험용 에볼라 백신이 잠재적 생물테러 물질에 면역력을 제공하며, 한 개의 변종 바이러스 백신의 초기시험에서 “100%” 방어력을 부여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Global Biodefense가 보도했다.

2013년 5월에 발표된 연구물 저자들에 의하면, “개발 중에 있는 세 가지 백신접종도 모두 광견병에 면역 반응을 부여했으며, 이것은 백신 완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우려를 다룰 수 있는 특징이다” 라고 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Thomas Jefferson 대학의 과학자들은 15마리의 붉은털 원숭이(rhesus macaques)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위약(placebo)이나 시험용 백신 중 한 개를 투여했는데, 이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실험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요약에 의하면, “우리의 복제가능 생백신(live replication-competent vaccine)은 에볼라 바이

러스를 100% 방어한 반면에, 복제불능 비활성화 후보 백신(replication-deficient and inactivated candidates)은 50% 방어율을 보였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비활성화 백신을 통해 인체로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를 완전히 방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는데, 비활성화 백신은 죽은 상태라 더 안전한 바이러스 샘플을 이용하여 면역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뉴욕에 있는 한 바이오 기업은 논란이 되는 자사의 천연두 치료제 세 번째 배치를 대응의약품의 국가 전략비축물 측에 인도했는데, 이번 인도분으로 미국 정부는 Arestvyr 치료제 총 590,000회 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SIGA Technologies사는 7,90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미국 보건부는 이 의약품 200만 세트를 요청했다고 Corvallis Gazette-Times가 보도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19)

SIGA Technologies사, 미국 바이오티펜스 국가전략비축물에 3차 천연두 의약품 인도

SIGA Technologies, Inc.는 자사의 천연두 항생제인 Arestvyr을 미국 정부의 국가전략비축물에 세 번째로 인도함으로써 또 다른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SIGA는 지난 5개월 동안 약 590,000회 분의 Arestvyr을 국가전략비축물에 인도함으로써 미국 생물의학 고등연구개발국과 체결한 계약의 핵심요건을 충족했으며, 현재까지 인도된 분량에 대해 약 7,900만 달러를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다.

Arestvyr(Tecovirimat)는 바이오실드 프로젝트로 알려진 9. 11 테러 이후의 입법권한에 따라 개발, 조달된 뒤 현재 국가전략비축물에 인도된 첫 번째 신약 중 하나로 예전에 ST-26으로 알려져 있던 Arestvyr는 테러공격, 생물무기, 새로운 자연적 발병에 상관없이 천연두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다.

(Global Biodefense : 2013. 7. 17)

미국 보건부, 비재래식 무기공격 및 기타 질병 대응 지원금 축소 발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두 개의 의료대응 프로그램에 따른 2013 회계연도 지원금은 9억 1,600만 달러라고 발표했는데, 동 금액은 비재래식 무기공격 및 기타 질병에 대한 미국 내 대비상태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2년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이다.

미국 보건부는 공중보건비상대응협약의 지원금 프로그램에는 5억 8,400만 달러를, 병원대응 프로그램에는 3억 3,2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 두 개 프로그램에 대한 2012 년 회계연도 지원금은 각각 6억 1,900만 달러와 3억 5,200만 달러였다.

미국 보건부 발표에 의하면, 현행 예산주기에 따른 지원금은 50개 주와 8개 지역을 모두 포괄하며, 이 중에서 특히 네 개의 주요 도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보건부의 Nicole Lurie 비상대응대비 담당 차관은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대응 프로그램이 우리의 보건 시스템을 보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공중보건 시스템은 비상상황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허리케인 샌디 같은 재해, 텍사스 화학공장 같은 대형 폭발사고, 2013년 4월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테러 같은 사건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생물위협 경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재정 지원 수령

생물위협 탐지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생물방어 공동 프로젝트(North Carolina Bio-Preparedness Collaborative, NCB-Prepared)는 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WRAL Tech Wire는 하원 국토안보세출 소위원회의 David Price 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이 상기 지원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동 경보시스템은 현재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의 재정지원으로 데이터가 확대되어 시스템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주립대학, 민간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생물방어 공동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물테러 공격, 감염병, 식품매개질환, 기타 생물위협의 발생사실을 감지하여 수시간 내에 보건관리들과 1차 대응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주 차원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동 시스템은 사람, 동물,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1차 대응자와 보건관리들에게 공격유형과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의 기관들이 이용하게 된다.

Price 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생물방어 공동 프로젝트는 현재 상호 연계되지 않는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를 모아 1차 대응자와 보건관계자들이 보건관련 사고나 생물학적, 화학적 공격으로 인한 위협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생물방어 공동 프로젝트는 또한 가능한 한 파괴력이 가장 적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난대응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대응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동 프로젝트는 협력적 협정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보건국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지원받아 2010년에 출범했다.

(Homeland Security News Wire : 2013. 7. 29)

세계 주요 도시, 생물테러 공격 대비 준비 미흡 우려

샌프란시스코--소규모 테러집단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천연두를 감염시킨 뒤 런던 시내를 확보하며 시민들에게 균을 퍼뜨린다고 상상해보면, 전 세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이 끔찍한 질병은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이 질문은 어떤 도시에서 발생한 생물테러 공격이 얼마나 빨리 전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규 컴퓨터 모델의 핵심

으로, 과학자들은 런던, 뉴욕, 파리, 기타 주요 도시에 천연두가 방출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여행객들이 어떻게 다른 여러 국가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상의 시나리오는 천연두가 2~4개 국가로 확산된 뒤에 의사들이 어떻게든 천연두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 해도 감염자들을 격리시키고, 백신을 배포하며, 발병원을 추적하는 엄청난 작업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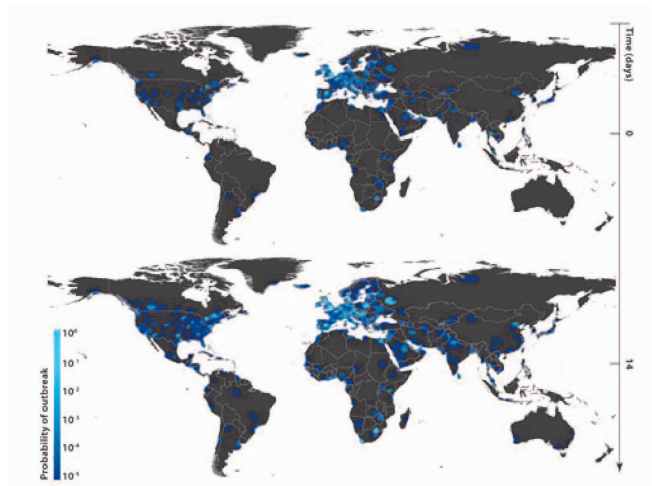
미국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의 Alessandro Vespig-nani 컴퓨터보건과 학 교수는 이전의 생물테러 연구 결과를 보면 자체 프로토콜과 백신을 가지고 있는 서방국들이 생물공격을 다룰 준비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Scientific Reports 논문에서(이 논문은 국제안보문제 조사용이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됨) 상기 교수와 동료 연구원들은 현지의 대응태세를 추정하는데 커다란 그림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는데, Vespig - nani 교수는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발병상황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발병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다른 곳에 확산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상황은 바뀌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 가지 큰 위험은 천연두가 런던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양세계의 보건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로 확산될 수 있고, 이런 곳에서는 천연두가 강력한 대유행병이 되어 더 많은 국가를 덮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저개발 국가 주변의 도시를 공격할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생물테러주의자가 어떤 도시를 타겟으로 삼든지간에 최소한 컴퓨터 모델에 의하면, 질병의 확산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염의 진행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아래에 런던의 천연두 방출에서 시작된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 두 지도 모두 당국이 발병사실을 알게 된 시기(위의 지도)와 2주 후(아래 지도) 시점을 기준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연파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Vespig-nani 교수는 “세계 각 지역에 감염된 사람들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한다.

Vespig-nani 교수는 이 결과에서 염두에 둘 사항이 두 가지 있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정부와 국제보건

기구(세계보건기구, 질병예방통제센터 등)가 먼 곳에서 시발된 대유행병에 대해 긴급대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이들은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유명인을 따라 하려고 병



원균을 취급하는 테러범들이 생물공격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이 표적으로 삼는 곳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빠르고 쉽게 전세계로 확산되어 결국엔 자신의 고국으로 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면 결국 승리자는 없다”라고 말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25)

미국과 한국, 생물테러 합동훈련 실시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은 제3차 연례 생물테러 합동 훈련을 위해 2013년 6월 한국의 서울에 모여, 미국 관리 약 80여명과 120~130명의 한국군 관계자들은 도상 훈련에 참가했다.

*Stars and Stripes*는 훈련 참가자들이 가상 공격상황을 연구한 뒤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약점을 파악하고 비상대응계획을 개선하게 될 거라고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3일간 진행되는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3)에 앞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만큼 생물테러가 심각한 위협이다” 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은 생물학적인 발병뿐만 아니라 생물테러 위협과도 관련이 있는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시스템을 검토하여, 생물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한 관리의는 생물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는 알려지지 않은 활동세력에 주력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훈련의 핵심은 북한을 비롯하여 어떤 단체나 국가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omeland Security News Wire : 2013. 7. 15)

미국 국방부, 케냐와 우간다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지원

워싱턴--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공격과 유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케냐와 우간다의 정예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극단주의자들이 앞으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테러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의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케냐의 국제평화유지활동 군 참가자들이 2013년 10월 소말리아 남부지역에서 트럭에 타고 있다. 케냐와 우간다는 대량살상무기 및 유사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AP Photo/아프리카 연합-U.N. 정보지원팀).

올해 초에 시작된 방어물자 공급 및 대응훈련은 화학, 생물, 방사능, 핵 재해를 비롯하여 비재래식 공격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년짜리 국방부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정부에게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미국 국방위협대응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의 활동은 미국-아프리카 사령부로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케냐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핵심 수혜기관은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대량학살(genocide)” 행위에 대응할 목적으로 다른 아프리카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전에 업무를 시작한 팀이라고 케냐부대 사령관이 *Global Security Newswire*에 말했다.

“케냐에선 테러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다” 라고 케냐의 신속배치역량(Rapid Deployment Capability)을 지휘하는 Col. Isaac Muchendu가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위협대응국과 비정부 전문가 10명이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uchendu의 팀에 대한 대응훈련을 관리하고 있다고 GNS에 말했다.

Lynda Yezzi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가급적이면 앞으로의 업무에는 국방위협대응국과 계약업체의 비중이 줄어들고 케냐와 우간다의 주제 전문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각 국가가 자체 대응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 파트너들을 훈련시킬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했다.

케냐 대응군에게 공급된 장비에는 가스 마스크, 정압(positive pressure) 안전복, 송수신 겸용 무선통신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Muchendu가 말했는데, 케냐 관리에 의하면, 훈련은 장비의 사용과 유해물질의 탐지 및 제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Yezzi 대변인은 “케냐 부대와 우간다 부대가 각각 동일한 훈련과 지원을 받았다. 우간다 관리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 라고 말했다.

국방위협대응국 대변인은 지원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동 대변인은 이러한 지원이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한 개인 분석가는 이 지역의 과격분자들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격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알-샤바브(al-Shabaab) 같은 지역 과격단체들의 존재가 작용했을 거라고 국방대학의 Andre Le Sage 아프리카 선임 연구위원이 말했다.

2013년 초, 오바마 행정부는 케냐와 우간다에서 폭탄테러와 기타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거론된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지부에 대해 은밀한 군사작전을 확대해나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케냐군은 2011년부터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첩보원들과 맞서 싸워왔다.

Le Sage 연구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알샤바브와 인근의 게릴라 운동은 대개 AK-47과 즉흥적인 폭발장치에 의존하여 공격하나, 미국 국방부는 알샤바브 단체가 개발할만한 생화학무기를 다루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Le Sage 연구위원은 “동부 아프리카에 있을지도 모를 이러한 무기의 전구체는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있었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에서 생물물질의 보호를 강화하는 일은 미국의 위협대응활동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 분야에서는 핵 안보 프로그램이 오바마 행정부가 모색하던 지출삭감의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인데, 미국은 최근에 러시아와 맺은 20년짜리 이행 협약이 만료된 뒤 자체 대량살상무기 위협 최소화 활동이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10년에 미국 위협대응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케냐와 우간다에 보관된 병원균에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국가연구소에서 민감한 생물학적 연구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Richard Lugar(공화당-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에볼라와 탄저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변종에 대해 훨씬 더 뒤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Muchendu는 생물학적, 화학적 무기를 테러리스트들이 선택하는 비재래식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서 2001년 탄저균 우편물 사건과 움진리교가 1990년대에 일본에서 저지른 치명적인 일본 사린신경작용제 공격 두 건을 예로 들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23)

파키스탄 정부, 대량살상무기 공격 대응절차 준비

파키스탄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절차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파키스탄의 Business Recorder 지가 보도했다.

재난대응 계획은 파키스탄 군 전략기획본부의 작업으로 합동참모본부가 명령한 것이었는데, 동 정책은 생물, 화학, 핵,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공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24)

미국 리신 우편물 사건 피고측 변호사, 용의자 공판 연기 요청

한 판사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백악관, 미국 상원의원, 판사에게 리신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미시시피 거주 남성에 대한 2013년 7월 29일 예정된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탄원을 받았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Greg Park 변호사는 Everett Dutschke의 변호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Everett

Dutschke는 독소를 제조하여 우편물로 보낸 혐의 5건에 대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Dutschke는 2013년 4월 27일에 구금된 이후 구류상태에 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3)

미국 법원, 미국 Spokane에서 발생한 리신 우편물 사건 공판 연기

미국 리신 우편물 사건 연방수사가 복잡해짐에 따라, 부장판사는 공판을 1년 정도 연기하게 되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37세의 Matthew Ryan Buquet은 여러 개 연방사무실에 생물독소가 들어있는 편지 5통을 보낸 혐의를 부인했다. 이 우편물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데, 이에 따라 2013년 7월로 예정되었던 공판은 2014년 5월 5일로 연기되었다.

Stephanie Van Marter 검사는 미 지방법원의 Lonny Suko 판사에게 “해당 독소의 특성 상, 이번 사건의 증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실험실이 한 군데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피고측의 Matthew Campbell 변호사는 Buquet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은 당국으로부터 복잡한 사건자료를 받는 즉시 이에 대해 방법론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판이 열린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Van Marter 검사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 측이 향후 수 주일 내에 대부분의 자료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3. 7. 10)

koreaBio

Korea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발행일 : 2013년 9월 16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번지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실 BWC운영팀

전화 : 031-628-0026, 0027 팩스 : 031-628-0054

생물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www.bwckorea.or.kr

한국바이오협회 홈페이지 www.koreabio.org

* 본 BWC Monitoring은 National Journal Group Inc. 승인 하에 Global Security Newswire에서 제공된 기사를 번역하여 제공해 드리는 자료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